

LA백송교회 창립 5주년, 롱비치 새성전 입당

다민족교회 비전 선포, 전세계로 뻗어 나아가는 선교 지향

LA백송교회(담임 김성식 목사,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가 창립 5년 만에 롱비치에 새성전을 마련하고 지난 5일 감격적인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아름다운 교회에 입당하는 A 백송교회 성도들의 입가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입당감사예배에는 한국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를 비롯해 대구 백송교회, 토론토 백송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새 성전 입당을 축하했다. 또 미주성결교회 목회자들이 자리해 교회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LA백송교회가 이번에 입당한 교회는 6,336sf 규모에 2층으로 이뤄졌으며 예배당과, 사무실, 교육관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9개의 방이 마련돼 있어 선교사들의 숙소와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LA백송교회는 새 성전 입당을 시작으로 다민족교회로의 비전을 선포하고, 한인교회를 넘어 지역커뮤니티를 품고 전세계로 뻗어 나갈 계획이다.

김성식 목사는 "LA 백송교회가 이번에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며 "LA백송교회와 한국 백송교회, 토론토 백송



LA백송교회 롱비치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 기념촬영 ©기독일보

교회 등 전세계 백송 가족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 목사는 이어 "하나님께서 롱비치 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한인교회를 넘어, 다민족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도록 더욱 겸손과 열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뜻을 향하여 충성되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백송교회의 지교회로 2018년 1월 설립된 LA백송교회는 LA 코리아타운 중심부의 한 건물 지하에 교회를 마련하고 만 5년

동안 예배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건물주로부터 갑자기 한 달 내로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편지를 받고 온 교우가 함께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했다.

마침 성령컨퍼런스 인도자 LA백송교회를 방문한 이순희 목사는 컨퍼런스를 인도하며 자체 성전구입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롱비치에 자체 예배당을 마련하게 됐다. 건물주의 퇴거 명령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한국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는 "백송교회가 지금까지 놀라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

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었기에 가능했다"며 "LA 백송교회가 미주 지역과 전세계로 뻗어 나아가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입당감사예배는 김성식 목사의 집례로 전경구 목사(남서부 지방회부회장)의 대표기도와 표희곤 목사(남서부 지방회서기)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현석 목사(남서부 지방회장)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학2:4-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현석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된 LA백송교회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길 바란다"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특별히 구원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자"고 전했다.

총회장 이대우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으며 김시은 목사(미주성결교회 교단 총무), 김병호 목사(필그림교회), 김기동 목사(전OC교회협의회 회장)가 이어서 축사를 전했다. 또 윤석형 목사(미주성결교회 직전총회장)와 류종길 목사(미주사중복음연구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조종곤 원로 목사(미주성결교회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미국인 3명 중 1명 "목회자 신뢰도 높이 평가" ...직업 중 8위

갤럽 설문 조사, 팬데믹 이후 3년간 하락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목회자와 교류하는 미국인 수가 감소함에 따라,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미국 뱍티스트 프레스(BP)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갤럽(Gallup) 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1명(34%)이 목회자의 정직성과 윤리적 기준을 "높거나 매우 높게" 평가했다. 이는 지난

해 36%에서 줄어 사상 최저치에 속한다.

1985년에는 미국인의 67%가 목회자의 윤리적 기준과 정직성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할 만큼, 성직자를 크게 신뢰했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하다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반등해 2001년 9·11 테러의 여파로 64%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교회나 타 개신교 교단에서 성학대 스캔들이 보도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인 과반수가 목회자의 정직성을 높이 평가한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명 중 4명 미만이 목회자

의 윤리적 기준과 정직성을 높게 평가했고, 이 수치는 2019년 잠시 반등했다가 최근 3년간 하락했다.

올해는 미국인의 절반(45%)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이 목회자가 "평균적인 정직 수준"이라고 응답해 작년보다 3% 떨어졌다. 또 6명 중 1명(17%)은 목회자들의 윤리적 기준이 낮거나, 매우 낮다고 답해 지난해보다 3% 올랐다.

그중 35세 미만 성인은 목회자의 정직성을 '낮거나 매우 낮다'(21%)와 '높거나 매우 높다'(20%)고 말한 비율이 거의 일치했다. 반면, 연장자일수록 목회자를 더 신뢰하

는 경향을 보였다. 목회자의 정직성이 높다고 답한 미국 청년층은 5명 중 1명(20%)인데 반해, 35~54세는 30%, 55세 이상은 46%가 동의했다.

이는 정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목회자의 정직성과 윤리 수준을 더 신뢰했다. 고졸 이하는 5명 중 1명(21%)만이 목회자의 윤리적 기준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생각했다. 반면 2년제 대졸은 38%, 4년제 대졸 이상은 43%가 목회자의 윤리적 기준과 정직성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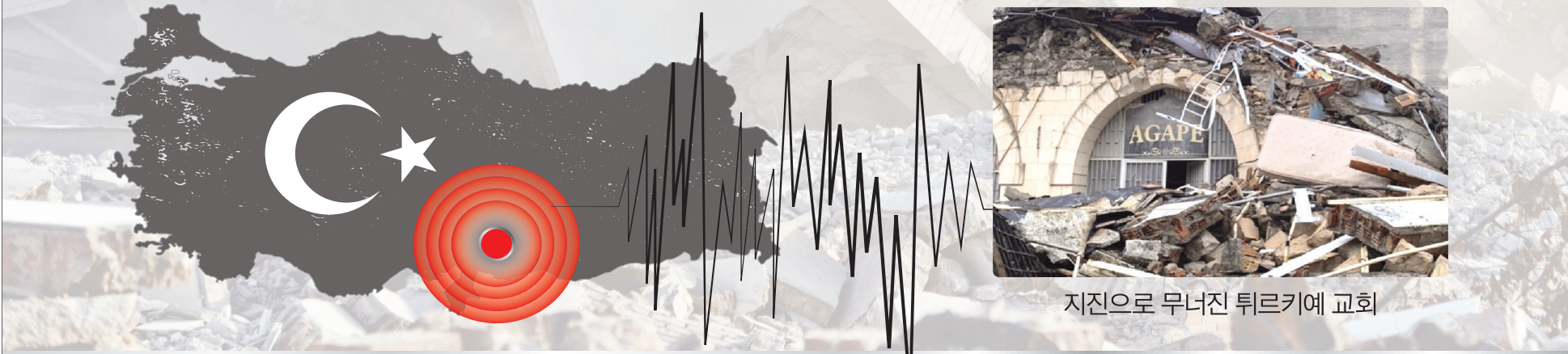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로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역을 구호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엄청난 지진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T국 C 선교사님과 C국 L 선교사님이 지진 현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진의 위험이 정리되는대로 현장에서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튀르키예 교회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북한 교화소에서 우리는 인간 짐승이었다”

윤설미 집사, 북한 인권 실태 고발

채널A의 인기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고정 출연해 북한의 실상을 알려 온 윤설미 집사가 LA 나성열린교회에서 열린 간증집회에서 북한교화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며 자유를 찾아나선 그녀의 탈북 여정을 소개했다.

윤설미 집사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다닌 평양 금성학원 출신으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닌 ‘재간’임을 강조했던 아버지 덕에 9살부터 아코디언 연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환으로 가세가 기울자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그곳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그녀는 중국인에게 팔려 강제로 결혼하게 됐고 젓먹이 딸을 출산했다. 마을 주민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잡힌 그녀는 생후 1개월 된 딸을 남겨둔 채 강제로 복송됐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전거리교화소에 입소한 그녀는 짐승 같은 삶을 혹독하게 이어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현실을 마주했다. 1천 2백여 명이 수감된 여자 교화소에는 매일 사람들이 입소하지만 정원은 변함이 없을 만큼 매일 사람들이 죽어갔다. 8평 정도 되는 협소한 수감시설에서 100명이 생활했는데, 밤에는 과자처럼 서로 포개져 잠을 자야 했다. 위생이 열악하고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있으니 전염병의 위험은 늘 따라다녔다.



LA 나성열린교회에서 간증하는 윤설미 집사 ©기독교일보

최소한의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손도끼 하나로 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운반하는 고강도의 노동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다. 밥과 반찬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가족들이 먹는 사료로 끼니를 때웠다. 일하는데 거주장스러운 머리카락은 모두 짧게 깎아버리고 머리에 수건을 씌워 일을 시켰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굶어주고, 맞아 죽고, 얼어 죽었다. 그녀의 체중도 35kg까지 떨어졌다.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녀도 언젠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교화소를 나가게 될까 두려웠다.

윤설미 집사는 “북한 교화소는 숨을 쉬기도 힘든 곳으로, 그곳에서 사람들은 인간 짐

승 같은 모습이었다”며 “하루도 시체가 나가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인간이 만든 지옥이 바로 그곳이었다”고 회상했다.

탈북을 했다는 이유로 5년 형을 선고 받아 교화소에서 복역하던 중 그녀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서 자신의 젓먹이 딸 사진을 볼 수 있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긴 그곳에서 그녀는 반드시 살아나가야만 하는 소망을 발견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딸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먹기로 했다. 산에 올라 나무를 베는 일을 마치면 뱀을 잡아 먹었다. 감옥 안에서 사람의 똥을 먹고 사는 쥐를 잡아 먹었

다. 짐승 대우를 받으며 짐승처럼 살아가지만 반드시 그곳에서 나가야만 했다. 삶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으로 매일 사람들이 시체로 죽어나가는 교화소에서 그녀의 체중은 50kg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교화소에서 출소하기 얼마 전,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복송 당해 교화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여성 기독교인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길었던 5년의 복역 기간이 지나고 출소한 날 바로 탈북을 시도했다. 두만강을 넘어 중국에 있을 아이를 보던 가던 중 또다시 불잡혀 강제 복송을 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교화소를 벗어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또 한번의 탈북을 감행했고, 중국에 있던 딸을 만났다.

북한 인권의 비참한 참상을 경험한 그녀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땅을 밟았고, 그녀의 딸도 그녀의 뒤를 이어 한국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누리며 대한민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는 아직도 북한 주체사상 아래서 배고픔과 인권 유린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이 허전해 진다.

그녀의 꿈은 북한 전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녀는 “통일이 되면 트럭 5대에 초코파이를 가득 싣고 고향마을에 가서 공짜로 초코파이를 나눠 주며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며 “북한 전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원한다”고 소망하며 간증을 마쳤다.

김동욱 기자

손경민 목사와 함께하는 GBC 은혜 찬양 콘서트 ‘가장 귀한 삶’

2월 15일-26일,
LA/OC/라스베가스 지역
9개 교회서 진행



찬양 ‘은혜’ 작곡가 손경민 목사 ©SDtv유튜브

GBC 미주복음방송은 사회·경제적 위기 가운데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 예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15일(수)부터 2월 26일(주일)까지 LA/OC/라스베가스 지역 9개 교회에서 GBC 은혜 찬양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양곡 ‘은혜’와 ‘행복’의 작사·작곡가인 손경민 목사와 ‘천 번을 불러도’로 널리 알려진 찬양사역자 주리 외에도 이윤화, 이기명, 김정희 등 영성과 실력을 갖춘 5인의 찬양사역자들을 함께 해 은혜와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이 3번째 미국 방문인 손경민 목사는 ‘미국 LA에서 GBC미주복음방송과 함께 투어 사역을 진행하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역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됐다”며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미주의 한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GBC 미주복음방송은 “찬양과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초대했다.

이번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된다. 공연 문의는 전화 714-484-1190(미주복음방송)로 할 수 있다.

[긴급 호소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월드쉐어USA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재난 구호 성금 모금

겨울에 예상치 못한 지진을 만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맘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태를 목도하셨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을 구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저희 월드쉐어USA와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본부(Sharing Brea for Soul: SBS)가 튀르키예지역 선교사님과 접촉해서 우선 선교지원금(구호금)을 보내는 중입니다. 많은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현장에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티 10년 전 첫 번째 지진으로 아이티의 반 기독교 정서가 무너지고 지금은 기독교 선교단체나 기독교적인 NGO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은 없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IS를 포함한 이슬람 세력 등이 강한 지역으로 선교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고 교회, 선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위기와 재난을 통하여 한인 교회와 조국의 교회가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구체적 사랑의 실천과 섬김 그리고 나눔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기쁜우리교회 창립 6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은퇴·임직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쁜우리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은퇴식과 임직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복된 예배와 예식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

일시 : 2023년 2월 12일(주일) 오후 12:30

장소 : 기쁜우리교회 본당

* 임직식 후에 기념품과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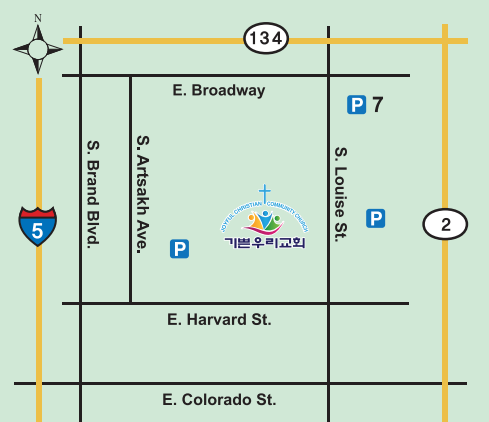


담임목사 김 경 진

임직자, 추대자 및 은퇴자 명단

- 장 로 : 오승일, 이정욱
- 안수집사 : 김도진
- 추대장로 : 공대용, 김광일, 김종범
- 추대권사 : 백살리, 신호신, 이정균, 장연진, 정상숙, 최덕순, 최종임
- 은퇴장로 : 김원국
- 은퇴권사 : 유순익, 장미경, 최순정, 최재순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히10:25)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el. 818-662-0400 Fax. 818-662-0800

강태광 목사 인문학 시리즈 “신약의 인문학” 출간

신약 이해 위한 필수 자료, 역사적 의미와 배경 지식 담아
목회자·신학생·평신도 지도자에게 필요한 내용 알차게 정리

기독교 인문학을 탐구하는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가 자신의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 세 번째 책 “신약의 인문학”(부제 인문학으로 읽은 예수님과 바울의 생애)을 출간했다.

저자는 서적, 논문, 강의 등 방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신약 이해를 위한 필수 자료와 배경 지식을 책에 담아냈다.

수전절과 마카비 혁명, 요세푸스 기록에 등장하는 예수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수차례 등장하는 헤롯 왕 등 주요 사건과 인물을 인문학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석해 이해를 도왔다. 또 예수님의 사역 현장인 가버나움과 갈릴리 바다, 고향 나사렛 등 다양한 장소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소개한 부분도 눈에 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추적하며 구브로의 바보 선교를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달려간 이유를 성서고고학적 자료를 동원해 해석해 냈고, 예수님의 주 사역 장소였던 가버나움이 당시 세계인들이 왕래하던 국제도시임을 밝히며,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풀어낸 점도 돋보인다.

또 신약의 고고학이나 신구약 중간사는 물론 유대역사와 문화, 헬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로마 역사와 문화 자료 등 인문학적 탐

구를 통해 신약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성경내외 자료들로 유익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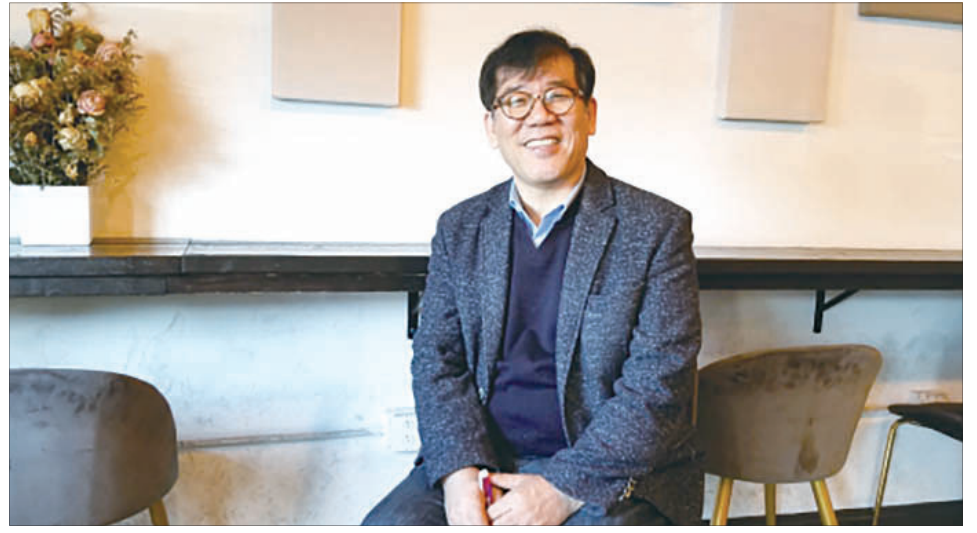
30여 년 동안 다양한 목회와 사역을 경험한 저자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비롯해 신약을 공부하는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알차게 정리했다.

특히 복음서나 사도행전 혹은 서신서 강해설교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앙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이해를 얻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강태광 목사는 “30여 년의 목회 가운데서 목마르고 아쉬웠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찾아보고 정리했다”며 “우리가 상식처럼 들었고 어렵풋하게 알았던 사실들을 책을 통해 알기 쉽게 저술했다”고 소개했다.

저자 강태광 목사는 부산에서 성장해 신학수련 후 군종목사로 입대해 20년간 상무팀(국군체육부대)군종목사, 미8군한국군(KA-TUSA)군종목사, 백마부대 군종참모, 행정학교 군종학교관 등으로 사역하며 삶과 사역의 지평을 넓혔다.

육군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골턴게이트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신약신학(Th.M)을 공부하며 Dr. Martin 지도로 신약 인문학에



자신의 세 번째 인문학 시리즈 “신약의 인문학”을 출간한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 ©기독교일보

눈을 떴다. 전역하며 미8군에서 동역한 미군종목사(Dr. David Coram)의 초청으로 도미해 테네시주에서 10년간 목회했다.

이어 국제 구호기관 World Share USA 대표를 맡아 가난, 재난,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을 섬기며, 전 인격을 섬기는 종합선교기관 SBS(Sharing Bread for Soul/ 생명의 빵 나눔 운동) 대표로 빵(Bread)과 복음(Bible)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

강태광 목사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폭넓은 독서를 바탕으로 기독교 인문학을 탐구 중이다. 현재 미주 조선일보(행복 칼럼), 기독교일보(문학 칼럼), 미주 크리스천 신문(인

문학 칼럼), 남미 복음 신문, 미주 침례 신문에 기독교 인문학 칼럼을 기고하며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강 목사는 <불청객>을 포함한 다수의 시집과 칼럼집(당신의 행복을 여는 99가지 열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등의 설교집을 발간하였고, 최근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를 출간해 수익금으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우크라이나, 아이티 그리고 수리남) 아동들을 돕기 위한 2만명 만나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아이티, 수리남 그리고 우크라이나 아동 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김동욱 기자

“OC 지역 복음화 및 기독교 평신도 신앙 성장 도울 것”

OC 교회 및 교계 소식 알리고, 공유하는 장 만들 계획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지난 4일, 에반젤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2월 정기 조찬기도회 개최했다.

이날 조찬기도회는 신용 회장의 사회로 신동직 총무의 대표기도에 이어 선한뜻교회 담임이며 OC교협 총무인 추석근 목사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마21:18-2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서 추석근 목사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기도”라며 “매일 아침에 모여 드리는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고, 그 기도의 힘이 OC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미국과 이민사회를 변화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합심기도로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 OC 지역과 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해외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 연합회 올해 사역과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2월 정기 조찬 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하고 이소연 이사가 마무리 기도했다.

한편 연합회는 올해부터 OC지역 교회와 교계의 소식을 매월 알리고, 서로 공유하는 장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순서지를 확대 개편해 예배 순서뿐만 아니라 회원동정, 회원교회 및 교계소식을 위한 지면을 추가한다.

현재 연합회 회원(이사, 자문위원 포함)들이 출석하는 교회 수만 해도 40여 교회가 되

는데, 40여 회원 교회의 소식이 공유된다면 OC지역 교회 활동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 회장은 “연합회는 OC 지역 복음화와 기독교 평신도들의 신앙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연합기관”이라며 “명실상부한 교회 연합기관의 모습을 찾아가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윤우경 이사장은 “오래 전부터 우리 연합회가 꿈꾸던 일인데 올해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제대로 된 평신도들의 교회연합단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도 이런 일을 하기는 여의치 않은데 우리 연합회가 한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말했다.

연합회는 교계연합 및 교회협력과 관련해 3월 조찬기도회 때는 OC교계 주요단체가 함께 참석하는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3월 조찬기도회는 오는 3월 4일(토) 오전 8시, 에반젤리아대학교 2층 예배실에서 열리며, OC교협, OC목사회, OC한인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교는 OC 교협 이사 가운데 한 명이 전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매월 첫 토요일 아침 8시에 애너하임에 있는 에반젤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정기 조찬기도회를 갖고, 기독교 평신도의 신앙향상과 친목도모, 교계연합과 교회협력,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매월 열리는 조찬기도회 설교는 연합회 유튜브 채널(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퍼!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메이저 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을 임용하였습니다.

‘미군 247년 역사 최초’ 아시아인 군목 중령 부부는 한국인

조진호·김은이 목사 이라크 파병, 병사들 영적 무장 돕고 상담 실시

조진호(에이브라함 조)·김은이(유니스 조) 목사 부부는 미국 247년 역사 최초 아시아인 미군 군목이다.

최근 업무 및 휴가차 한국을 찾은 부부는 올해 초 함께 중령(Lieutenant Colonel)으로 진급했다. 이 역시 아시아인 최초다.

조진호 목사는 미 육군 연방이 명령하면 파병을 나가는 상비군 군목(Reserve Chaplain), 아내 김은이 목사는 남편이 있던 캘리포니아주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부대로 옮겨 군목 모범관으로 각각 근무 중이다.

조 목사는 미국 유학 중 1995년 여름방학에 잠시 귀국했다. 김 목사를 소개받아 결혼으로까지 이어졌다. 부부이지만 자주 떨어져야 하는 어려움은 군인 가족들의 고충이다. 부부 모두 서울신대학교와 아주사피사피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됐다. 둘은 모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목회자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군목으로 임대해 2004-2005년 이라크 전쟁 당시 파병을 다녀온 특별한 경험이 있다. 당시엔 영어가 부



기성 미주총회에 참석한 조진호·김은이 목사.

족해서 몸으로 떼우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파병을 나간 것도 ‘오역(?)’ 때문이었다. 동기부여(motivation) 코스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파병(mobilization) 프로그램이었던 것.

군목들의 경우 전투 지역에서도 부대 밖으로 함께 작전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 알카에다는 미군을 제보·납치하거나 죽일 때마다 상금을 지급한다. 종교적 집단이기에 군종의 목숨값이 장군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장군이 1만 달러라면, 군종은 2만 5천 달러에 달한다. 그래서 알카에다가 위협을 무릅쓰고 미군을 죽이려 혈안이 된 것이다.

하지만 한다리 건너 죽음을 보고 사는 병사들이 두려움에 “같이 가면 우리가 안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군목들보다 훨씬 많이 따라나갔다. 군목들에게는 총도 지급되지 않기에, 사실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결국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고 상비군이 됐다.

조진호 목사는 파병 중 기도과 성경공부, 예배 등으로 병사들의 ‘영적 무장’을 돕고, 상담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등 ‘정신적 멘토’ 역할을 맡았다. 또 현지의 상황과 종교, 사회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임무에 나서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간접적 선교활동도 진행했다.

그 가운데 조진호 목사는 이라크 파병 당시 이라크인들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라크만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국가라는 것. 중동이라고 다 무슬림은 아니고, 말씀을 전하거나 궁극한 점들을 알려주다 보면 와서 세례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레즈비언 커플이 주레나 강아지 안수를 요청받은 아찔한 기억도 털어놓았다. 교단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거부했고, 총회가 적절한 서류를 제때 발급해줘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우리 교단이 그래서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 목사와 달리 사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역을 비롯해 상담과 예배 인도와 설교 등 풀타임 군목 사역을 하고 있는 김은이 목사도 남편의 이라크 파병 당시 미국에 남아 가족들을 돌본 경험이 있고, 2009년 직접 이라크로 파병을 나가기도 했다. 그래서 파병 가족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 뿐 아니라,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희생자들을 직접 목격한 체험을 갖고 군인들을 상담하고 군목을 모집한다.

김 목사는 조 목사와 같은 극적인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병사들을 방문하면 자주 와 달라고 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조진호 목사는 정년퇴직 후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척지를 조금씩 탐색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함께하고 있는 조 목사는 제대 후 ‘복음성이 창작 가요제’를 만들고 싶은 비전을 품고 있다.

김은이 목사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이 잦은 이동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감안, 은퇴 후 큰 덤프트럭을 사서 운전자들을 위한 ‘움직이는 교회’ 사역 또는 재향군인 병원 사역 등 하나씩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하고 싶은 꿈을 전했다.

김진영 기자

베트남의 언더우드 장요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

베트남 장요나 선교사가 남가주를 방문했다. 장요나 선교사는 원래 출세가도를 달리던 모태신앙 크리스천 사업가였다. 부모님에게 기도를 배웠고 미션스쿨을 다니며 성경을 암송했다.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자신의 회사를 일궜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벌렸다. 더 벌기 위해 크리스천으로 부끄러운 일도 서슴지 않았다. 물 쓰듯 돈을 쓰며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1985년 41세 때 갑자기 전신이 굳어지고 감각이 사라졌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기저귀를 차고 목에 구멍을 뚫어 연명해야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남들이 얘기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병원에서 10개월이 흘렀다. 어느 날 장모님이 찾아와 이제 그만 사위의 산소호흡기를 떼고 포기하자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께 충성 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음성을 주셨고 기적처럼 깨어났다.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그는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매일 같이 부흥회를 다니며 간증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다.

1990년에 혈혈단신으로 베트남에 들어가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하기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350여 개 교회와 병원 16개, 초등학교2개, 중학교 1개를 세우고, 현지 신학교를 세워 매년 60여명의 사역자를 배출하고 있다.

1943년생으로 올해 80세가 넘는 장 선교사는 척추를 비롯하여 모든 뼈마디가 대나무처럼 굳어가는 ‘강직성척추염’ 때문에 몸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으로 시달리며 한쪽 눈은 실명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교를 향한 열정은 멈출 수 없었다.

지난 5일 장요나 선교사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김종용 목사)에서 열린 영적 각성 치유집회에서 요16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 선교사는 “평안의 뜻은 영생과 형통의 뜻과 원어적으로 같다”면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담대 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의 문제 실패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 목사는 이어 “담대하라는 명령형이다.



나눔과섬김의교회 장요나 선교사 초청 영적 각성 치유집회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우리에게 오는 환란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을 의탁하고 나아가 한다.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서사라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이사장)가 인도하는 기도회에 이어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플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실라이도요 교수, D.Miss (플리신학교) 티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실선신학)
 한우리 교수, Ph.D.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실선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2023년 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3년 2월 6일 (월) - 3월 3일 (금)
합격자 발표	2023년 3월 10일 (금)
- 봄 학기 일정(10주)
2023년 3월 27일 (월) - 6월 2일 (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112 /admin.kor@itsla.edu

명예이사장 이영훈, Ph.D.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유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ITS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는 “학생 후원자”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당신은 신학생을 지원하여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정서영 단독 후보 “한기총 정상화되면, 통합은 따라올 것”

정견발표서 연합기관 통합에 강한 의지 피력

3년여 만에 진행되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정독서영 목사(예장 합동개혁 총회장)가 정견발표에서 “연합기관이 하나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화를 시도하겠다. 입기 동안 하나되지 못한다면 기틀만이라도 마련할 것”이라며 연합기관 통합에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정 후보는 3일 오후 3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가진 정견발표에서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사회로부터 기독교 전체가 외면당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도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의 현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한기총이 다시 한 번 본래의 자리를 회복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한기총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분명하고

자신 있게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다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믿는다. 한기총이라는 이름에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기총이 이러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사회 각 분야에 기독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다시 인정받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지난 세월 한기총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새로운 한기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한국의 보수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왜 계속해서 분립에 분립을 거듭하나. 신학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아니다. 분립의 이유가 신학이나 신앙에 관한 것이라면 어쨌든 이해가 된다. 그러나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열되었는가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다. 지금도 왜 하나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면 그 원인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 모두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정서영 목사 ©송경호 기자

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목회자가 먼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한기총이 중심에서 서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제 2의 부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연합기관이 하나되어야 한다”며 “저는 이 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제 입기 동안 하나되지 못하면 그 기틀만이라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에 한기총 모든 교단과 단체가 하나되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한기총이 새롭게 되고 한국 기독교가 사회와 정부로부터 명실공히 한국기독교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다시

일어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목사는 연합기관 통합의 전제 ‘한기총의 정상화’를 들었다. 주요 교단이 이탈되고 현재 남아 있는 교단과 회원들조차 갈등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연합기관 간 대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내디디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내외적으로 화해 중재자 역할에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한기총 안에는 네 편 내 편이 존재할 수 없다. 싸움에 휘말리면 동력을 잃는다. 모든 싸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평화롭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장총과 한기총 대표회장직의 겸임은 오히려 화합에 장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출마 전 양 기관의 정관을 점검하고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한장총에 속한 교단의 리더들이 힘써 주시면, 오히려 기관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선거를 치른다.

송경호 기자

빅데이터로 분석한 지난해 한국교회 4대 이슈는?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한국교회 4대 이슈는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목회자 강력범죄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탐구센터(이하 탐구센터)는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목회데이터연구소와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인 (주)골든플래닛에 의뢰해 2022년 한국교회 온라인 여론 분석을 실시,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1년 간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회’, ‘목사’라는 3가지 키워드를 부여해 수집한 것이다. 올해가 4년째 분석이다.

◆ 관심도·참여도 1위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탐구센터에 따르면 4대 이슈 중에서 단순 버즈량(특정 주제에 대한 웹 상의 확산 지표)만 보면 ‘목회자 강력범죄’가, 관심도와 참여도는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가 높았으나, 단기간에 가장 높은 주목을 받은 것은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였다.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특정 기간 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글의 수) 대비 조회수 분석에서는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가 본문 1건 당 조회수 28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탐구센터 측은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은 173건으로 2위였으며,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는 124건으로 3위, ‘목회자 강력범죄’

는 106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탐구센터는 “신천지 관련 조회수가 높은 것은 주로 신천지 홍보 활동으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조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댓글 수 분석에서도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가 본문 1건당 댓글 수 4.3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탐구센터는 “특히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이 10월 29일로 조사 기간의 거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수, 관심도, 참여도 Top4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올해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이와 관련해 탐구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금을 전달하거나, 이태원 참사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예배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약 한달 반 정도의 단기간(사건 발생 10월 29일~조사 종료 12월 16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활동(추모, 기도회, 예배 등)으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했다.

탐구센터는 “그동안 교회는 세계적 전쟁에 무관심하거나 사회적 재난에 도리어 희생자를 비난하는 식으로 사회의 질타를 받았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태원 참사의 경우 희생자와 유가족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잘 보여주었고, 시민

들에게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이슈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 목회자 강력범죄

탐구센터는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주요 이슈에 선정됐다”며 “올해도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목회자가 보이 스피스에 가담하거나 횡령하는 범죄 사건들도 보도됐다”고 했다.

탐구센터는 “하지만 관심도는 가장 낮았으며 참여도는 3위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여서 새로운 관심을 모으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탐구센터는 “다양한 교회, 단체, 기관에서 포럼·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해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참여도와 관심도 모두 2위로, 일상 회복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탐구센터는 “관심도와 참여도 모두 1위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천지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별세

동성애자 인권 옹호 운동 등을 해왔던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가 지난 3일 향년 55세로 별세했다.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교회 홈페이지

1968년생인 고인은 한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강남향린교회 전도사, 토론토 명성교회 전도사, 향린교회 부목사, 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를 맡았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 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2013년 서울LGBT영화제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대의원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빈소는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2호실에 마련됐으며, 오는 7일 오전 7시 발인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	-----------------------------------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美 기독교인 수 감소 속도, 여성이 더 빨라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긴 여성들 1,600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이프에 따르면, 작가이자 프리랜서 기자인 에리카 앤더슨(Ericka Andersen)은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리턴 투 리턴'(Reason to Return: Why Women Needs the Church and Church Needs Women)에서 "지난 10년간 약 1,600만 명의 여성이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앤더슨 작가는 CBN의 플레이어링크(PrayerLink)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과거의 교회가 미래의 교회 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며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여성들이 교회로 돌아와 기쁨과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길 원한

다"고 말했다.

앤더슨 작가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났는지에 대한 일부 자료들,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후, 난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음을 알았다. 이 여성들 중 다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을 신앙 공동체로 다시 초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퓨리서치(Pew Research)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은 덜 종교적이 되었고,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여성의 수가 80%에서 69%로 감소했다. 반면 무신론자라고 밝힌 여성의 수는 10% 증가했다.

CBN 뉴스는 "많은 여성들이 #처치투

(ChurchToo) 운동으로 교회에서 수십 건의 성추행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전했다.

릴리번트매거진(Relevant Magazine)은 최근 보도에서 "현재까지 여성을 교회 밖으로 몰아낸 가장 큰 요인은 성(sex)이다. #처치투 운동은 교회에서 성적 순결에 대한 메시지를 무책임하게 다룬 것이 일부 여성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앤더슨은 플레이어링크와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는 추가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압박, 스트레스, 분주함을 들 수 있다. 아마 해체일 수도,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회심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신앙을) 해체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작은 인도하심, 동행할 친구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여성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더 나은 정신 건강, 더 나은 관계성, 더 나은 신체적 건강 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모든 종류의 유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자녀들도 번성할 수 있고 덜 불안하며 덜 우울해질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이며 세상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자신감을 느끼며 성인이 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미 CCM 가수, 절망 중 "아직 끝난게 아니야" 하나님 음성 들어

‘예수 이름 안에서’ 가수 케이티 니콜, “삶을 포기말라” 당부

미국 기독교 음악 가수인 케이티 니콜(Katy Nichole)이 최근 ‘록 더 유니버스’(Rock the Universe) 무대 공연에서 깊은 절망 속에 있던 자신을 격려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니콜은 청중들에게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절망 중에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싱어송라이터인 그녀는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안다. 나는 단지 노래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며 “내가 고통을 극복한 방법이 노래를 쓰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들을 부른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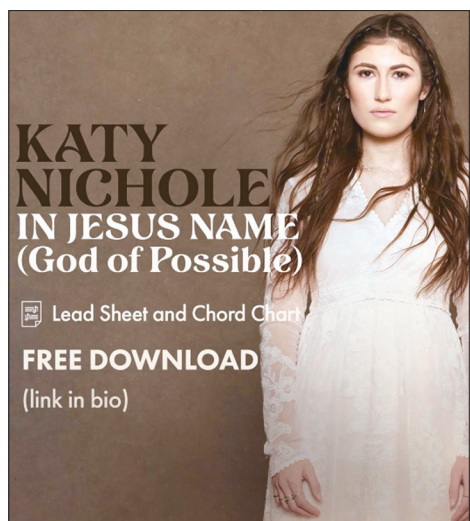
2022년, 그녀의 데뷔 싱글 앨범인 ‘예수 이름 안에서’(In Jesus Name: God of Possible)는 틱톡 영상으로 입소문을 타며 각종 차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니콜의 성공 뒤에는 엄청난 고통과 투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이 있었다. 그녀는 척추측만증 수술로 인해 오랜 기간 병원 침상에서 누워 지내야만 했다고.

니콜은 청중들에게 첫 번째 수술 당시를 떠올리며 “내 인생에 한때 포기하고 싶던 순간이 있었다. 희망을 볼 수도, 찾을 수도 없었다. 나는 허리 수술을 받아 매우 고통스러웠다. 수술 이후에는 희망이 없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나는 약병을 집어 든 곳에 도착했다. 화장실로 가져갔는데, 어찌 된 일인지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알약이 사방으로 쏟아졌다”라며 “그 순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잠깐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니콜은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 순간 나는



2022년 케이티 니콜이 발매한 앨범 〈예수 이름 안에서: In Jesus Name〉. ©케이티 니콜 공식 페이스북

붙들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 주실 줄을 알았고, 그 점에 있어 그분을 신뢰했다”고 말했다.

니콜은 무대에서 “모든 사람이 희망을 필

요로 하는 것을 안다. 여러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때로는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다”면서 “나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첫 수술 뒤 3년 후, 니콜은 척추를 고정하기 위해 척추뼈에 박아둔 금속 막대와 나사를 제거하는 후속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병상에 누워 건강을 회복하기까지의 니콜의 이야기는 최근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을 통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올해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는 기독교 음악 축제를 시작한 지 25주년을 맞았다. 지난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열린 행사에는 스킬렛(Skillet), 타우렌 웰스(Tauren Wells), 잭 윌리엄스(Zach Williams), 매튜 웨스트(Matthew West) 등 유명 기독교 음악가들이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

김유진 기자

美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공화당 의원들, 낙태와 동성애 회개

워싱턴 D.C. 소재 성경박물관서 ‘전국 회개 기도회’

지난 1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 소재 성경박물관에서 열린 ‘전국 회개 기도회’(National Gathering for Prayer & Repentance)에는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해 낙태 죄를 회개했다. 이 모임은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조찬기도회 하루 전에 열렸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다양한 주제를 다룬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로 대 웨이드’(낙태 합법화 판례)가 뒤집힌 사건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낙태를 통해 태아를 ‘살인’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저스티스 파운데이션(Justice Foundation) 설립자이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로 대 웨이드 사건’의 로(Roe)로 알려진 노르마 맥코비(Norma McCorvey)의 법적 대리인 맡은 알란 파커(Allan Parker) 변호사는 “아버지, 당신은 수백만 건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당신에게 아이들 살해에 대해 심각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이어 “우리는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에 기록된 ‘생명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아이들의 생명과 자궁의 생명을 포함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십시오”라고 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러브 라이프’(Love Life) 사역의 시 담당자인 리사 워싱턴(Lisa Washington)은 자신의 삶을 낙태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주님, 어머니가 저를 낙태하지 않



전국 회개기도회. ©National Gathering for Prayer & Repentance

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는 주님 앞에 저의 낙태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당신의 치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했다.

비영리단체인 러 라이프는 원치 않는 임신에 직면한 여성과 남성이 낙태 시술소가 아닌 지역 교회를 통해 진정한 도움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회를 동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워싱턴은 또 다른 여성과 남성을 대신해 낙태 문제에 대한 교만, 이기심, 성적 부도덕을 회개하고, 여성들에게 낙태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서 낙태를 하게 만든 교회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동성애에 매력을 느끼며 자란 캘리포니아 주 처치유나이티드(Church United)의 짐 도멘(Jim Domen) 목사는 동성애의 죄와 삶을 공개적으로 회개했다.

처치유나이티드는 연례 콘퍼런스인 ‘성벽의 파수꾼’(Watchmen on the Wall)과 더불어 교회 지도자들이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의 저명한 지도자들과 연결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사역이다.

2004년에 목사가 돼 10년 넘게 아내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도멘 목사는 자신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Not a Mistake: Parents’ Hope For Their Gay Son’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다.

도멘 목사는 “예수님, 동성애와 동성애 생활을 한 죄를 회개합니다. 당신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허락하신 성의 진실을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당신의 교회 때문에 애똥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희망 없는 세상에 빛과 예수님의 진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의 모든 부서가 남성과 여성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난 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소셜미디어, 공교육, 의료 및 제약 분야는 우리 아이들의 신체를 훼손하고 생물학적 성을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가 이 나라 전체에 흐르게 하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동성애, 양성애, 성적 문

란의 죄를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강력한 이름으로 미국인들을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했다.

처치유나이티 사역자인 다니엘라 보타(Danielle Vota)는 양성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녀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양성애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거부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제 사악한 행동을 조장하기 위해 거짓 교사들을 찾았습니다. 저는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개방적이고 음란한 생활 방식으로 당신의 신성한 결혼 서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선하고 자비롭습니다. ‘거짓 선생들에게서 나오는 소음은 둔한 종일거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죄의 진정한 본질과 구주가 절박하게 필요한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의 물결이 이 나라 전체에 퍼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약 3시간에 걸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앤 그레함 로츠(Anne Graham Lotz), 카터 콘론(Carter Conlon), 앤드류 브런슨(Andrew Brunson), 조나단 칸(Jonathan Cahn)과 같은 복음주의 지도자들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화당의 하원 대표인 스티브 스칼리스(Steve Scalise) 의원, 로스앤젤레스주 메리 밀러(Mary Miller) 의원, 일리노이주 릭 알렌(Rick Allen) 의원, 텍사스주 브라이언 바빈(Brian Babin) 의원, 텍사스주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의원, 앨라배마주 로버트 앤더홀트(Robert Aderholt) 의원, 캔사스주 트레이시 맨(Tracey Mann)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혜진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12:50
주일예배 2부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자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놀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jrkdk@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일참기교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스크립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2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3부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회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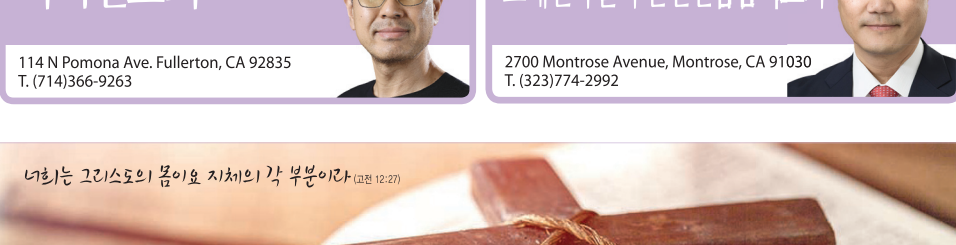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체드(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아)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일) - 한영성예배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대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den 고지)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례예배 오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주일 2부 전례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리는 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한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리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보기도회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치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까지)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까지)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gwgm.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kv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니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美 바이든, 국가조찬기도회서 양당에 '상호 존중' 강조



미국 국가조찬기도회가 2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CBN News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국가조찬기도회가 2일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설교자로 나선 짐 심발라(Jim Cymbala) 목사가 “후히 베풀고 결코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뉴욕시에 있는 브루클린 장막교회를 이끌고 있는 짐 심발라 목사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면서 “당신은 주님이 필요하다.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주님이 필요하다. 의회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발라 목사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언급된 창세기 4장 26절이 종교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이 불의 발견, 바퀴의 발명, 원자의 분열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와서 ‘전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절 도와 주실 것임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발라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누군가 매일 매시간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한다. 스스로 필요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탈 기도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로를 존중하자고 권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와 삶 가운데서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는 서로를 이웃이 아닌 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갈라놓는 것보다 하나로 묶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랫동안 미국을 정의해 온 결의의 힘을 볼 수 있다”며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빛과 소망, 작은 사랑과 진리를 찾으라. 우리는 운명과 역사를 통해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기쁨은 성경의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 기독교 사역자가 주관했으며 지역 호텔에서 열렸다. 때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대표자 3,500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가조찬기도회재단으로 알려진 새로운 조직이 세워지면서, 참석자들은 연방정부 관리, 그 가족 및 소수의 구성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역 호텔이 아닌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재단 이사장을 맡은 마크 프라이어(Mark Pryor) 전 상원의원은 CP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조찬기도회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러한 변경이 이뤄졌다”며 “이는 조찬기도회를 더 작고 친밀한 모임으로 복원하려는 상원과 하원의 바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美 복음주의 단체, 슈퍼볼에 기독교 광고 노출



'He Gets Us' 캠페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스포츠 이벤트에 기독교 광고가 노출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이 광고를 진행한 업체는 2월 12일 진행되는 열리는 제57회 슈퍼볼 캔자스시티 대 필라델피아 경기에 해당 광고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He Gets Us' 광고는 사람들에게 성경 속의 예수님과 그분의 깊은 사랑과 용서를 다시금 알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1억 명이 넘는 이들에게 도달했다.

폭스스포츠 1/폭스스포츠라디오의 스포츠 해설자이자 캠페인 대변인 크리스 브루사드(Chris Broussard)는 크리스천헤드라인과의 인터뷰에서 “He Gets Us' 광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했다.

브루사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더라도 기독교를 매우 자주 인종주의, 엘리트주의, 우익 정치, 교외 지역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백인교도 연관시킨다”면서 “이 캠페인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참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공한 이들뿐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도 관계를 맺으셨다. 그는 어떤 특정한 인종,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 오셨다”고 했다.

슈퍼볼 56의 30초 광고 비용은 약 700만 달러(약 87억 7천만 원)이다. 브루사드는 “어떤 면에서 미국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함,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재명명할 필요가 있다”며 “He Gets Us 캠페인이 그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e Gets Us' 웹사이트는 이 캠페인이 '정치 조직' 또는 특정 교파나 교단과는 상관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묘사된 진정한 예수, 급진적인 용서와 연민과 사랑을 지니신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우리는 그분을 단지 선한 인간, 심오한 교사 그 이상이라고 믿는 이들이 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이들이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후 하늘에 계시고 오늘날에도 살아 계심을 믿는 이들”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튀르키예 강진' 에 광림교회가 세운 '안디옥 최초 개신교회' 도 무너져



강진으로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 광림교회가 2000년 튀르키예 안디옥에 설립했으며, 옛 프랑스 대사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기도 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공

6일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대형 지진으로 사망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교민 교회도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 광림교회(담임 김경석 목사)가 튀르키예에 설립한 '안디옥(안타키아) 개신교회'가 이번 강진으로 인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다행히도 큰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파송 선교사인 장성호 선교사는 현재 3명의 자녀를 비롯한 7명의 가족이 임시 대피소로 피신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불안정한 현지 상황으로 연락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광림교회 관계자는 "피신 과정에서 약간의 찰과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이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피소의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저희로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리아와 국경을 맞닿은 안디옥 개신

교회는 광림교회 담임이던故 김선도 감독이 이곳에 대한 비전을 품고 2000년 6월 29일 설립했으며, 옛 프랑스 대사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교회로 사용해 왔다.

이는 사도 바울의 선교 유적이 있고 이방선교의 기지가 됐던 역사성에 비해, 극소수의 정교회와 가톨릭교회만이 기독교 역사를 이어 오고 개신교회가 거의 전무했던 상황에서, 안디옥 최초 개신교회로 알려져 있다.

설립 20년이 지난 현재 안디옥의 지역 교회로 자리잡고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이어 왔으며, 시리아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통해 시리아 난민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터키어, 아랍어, 영어 등을 가르치는 사역도 진행해 왔다.

2020년 10월, 교회가 위치한 인근에 테러니스트들의 방화로 큰 산불이 발생해 인근 지역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을 때는 2,000그루의 평화의 묘목을 기증해 튀르키예 산림청으로부터 감사의 뜻과 기부인증서를 받기도 했다.

강해진 기자

'강진 피해' 튀르키예·시리아, 국제사회 도움의 손길 이어져



시리아 지역에서는 대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에 깔렸고, 생존한 사람들도 집을 잃어 추위에 떨고 있다. ©월드비전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 세계 각국 정상들은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과 함께 구조 인력 파견 등 지원 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유엔은 지진 대응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 팀들이 현장에서 수요를 평가하고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번 재난의 피해를 겪는 수천 가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성명에서 "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튀르키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미국의 즉각적 대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 지시에 따라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조율하기 위해 튀르키예에 담당자와 접촉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팀을 급파하기로 했으며, 일부 인력은 이미 현지로 출발했다.

야네스 레나르치치 인도적 지원·위기 관리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오늘 오전 튀르키예 지진 발생에 따라 EU의 시민 보호 메커니즘을 가동했다"며 "EU의 긴급 대응조정센터(ERCC)에서 유럽에서 구호팀 파견을 위해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또 "네덜란드와 루마니아에서 각각 구호팀이 이미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강진 여파로 진동이 감지된 인근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도 즉각 지원을 약속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희생자 발생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하고 매몰자들을 격렙한다. 독일은 당연히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리시 수낙 총리도 트위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로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트위터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란과 튀르키예에서 연이어 발생한 재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일본은 튀르키예에 수색·구조대를 급파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터키 정부의 요청을 받고 전날 밤 경찰 관계자 20여 명과 구조견으로 구성된 구조선발대 80여 명을 항공편으로 파견했다.

이미경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벨리세폴 OC캐플 최혁 담임목사
주일부 예배 오전 8:00 OC캐플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OC캐플 오후 7: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OC캐플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OC캐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일)

139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국영권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s.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교회(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벘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 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 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 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아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otmail.net

박훈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튀르키예(터키)에 불어 닥친 지진 재난 뒤에 계신 하나님”

필자가 이스탄불 공항에서 엘 에이로 오기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에 터키 동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이 속보로 올랐다. 불과 이를 전까지 현지인 교회 개척 사역자들을 방문하며 다녔던 지역이었다. 현지 선교사에게 그 지역 피해 상황을 파악해 달라 부탁하고 엘에이로 왔다.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왔지만, 사역자들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지역 난민들의 피해가 생각 이상으로 컸다. 현지인 지도자 집에서 자면서 대부분 돌로 건축한 수십 년 혹은 더 오래된 낡은 아파트들이 줄줄이 불어 있는 상황을 잘 알기에 걱정했는데 대부분 그런 아파트들의 피해가 컸다. 아직도 구조 작업이 펼쳐지는 상태고, 여진이 80여 차례나 계속 진행되고 있어 더욱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시리아와 국경 지역이며 쿠르드 민족의 밀집 지역이고 더군다나 각 나라의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몰려 사는 지역이라 그들의 피해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 오늘 칼럼은 필자가 만난 현지인 교회 개척자들의 사역 소식을 더 소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역자들의 피해가 커져서 교회들의 상황이 어렵게 바뀔 상태라 계속 소개하기가 힘들어졌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재난이나 현상 속에서도 우연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심을 믿는다. 이 지진 재난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한가지 생각이 났다.

학당했다. 필자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못하였다.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흘렀다. 도시 전체가 기독교 신앙을 갖기에 힘겨운 곳들이었다. ‘하나님, 이 도시를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독교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 터키의 역대급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현지인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이다. 사망자의 수가 계속 더해지고 있다. 부상자들과 거처를 잃은 더 많은 이재민, 난민으로 왔다가 다시 이재민이 된 그들에게 절망감만 더해질 것이다.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들어가 그들의 슬픔을 나누게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교회들과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듣는 기도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다. 후방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우리의 마음을 전하게 되길 바란다. 필자는 돌아오자마자 다시 그 땅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미력이나마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기를, 더 이상의 인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면서 그 땅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있다.

필자는 이번 터키 동남부 지역의 15개 도시에 있는 현지 교회 개척자들의 교회와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교회 개척의 부흥을 보고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엔 생각하기 어려운 핍박과 냉대가 있음도 보았다. 이번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는 우루파와 수루치 지역이다. 그곳 한 개척교회에서 지난주 주일예배를 드렸다. 그때 바로 전주에 한 새로운 이가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중 예배 참석자들의 사진과 이름들까지 자신의 핸드폰 네트워크로 온 동네에 퍼뜨렸다. 사역자의 고등학생 아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유로 퇴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실비아에게 구애하던 프로테우스는 부끄러움, 후회와 뉘우침으로 발렌티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발렌티나는 친구를 용서해 주고 실비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프로테우스에게 양보했습니다. 남장을 한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율리아는 기절했습니다. 발렌티나의 양보를 프로테우스가 수용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실비아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리아도 남장했던 것이 드러났고 프로테우스는 율리아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동하며 실비아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발렌티나가 실비아 남편 자격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발렌티나와 프로테우스는 화해했습니다. 이때 실비아를 찾아 나섰던 공작과 투리오가 나타났고, 투리오가 실비아에게 갔습니다. 이때 발렌티나가 자신이 실비아를 사랑하고 있고 양보할 수 없다고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이에 투리오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실비아를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횡설수설합니다. 이 광경을 본 공작은 분노하여 투리오를 물리치고 발렌티나를 딸의 연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작은 발렌티나를 사위감으로 받아들였고 발렌티나의 간청대로 그와 함께 했던 산적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런 훈훈한 장면을 보던 프로테우스는 참회를 했습니다. 공작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용서했고 네 사람은 밀라노로 돌아가 공작 앞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상은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로나의 두 신사>의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은 밝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순수한 사랑과 우정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발렌티나가 보여주는 우정과 사랑이 모든 장면의 막힘을 뚫어 줍니다. 순수한 사랑이나 우정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우정이 진정한 삶의 실력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인격의 힘입니다. 발렌티나는 친구로, 연인으로, 부하로, 산적두목으로 살면서 늘 최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산적 두목이 될 때에도 약자와 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인격은 향기를 발합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향기로운 인격의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베로나의 두 신사(The Two Gentlemen of Verona)”

베로나에 발렌티나와 프로테우스라는 젊은 두 신사는 친구였습니다. 둘은 공부도 같이하고 여가 시간도 함께 보냈습니다. 프로테우스는 율리아라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발렌티나는 애인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제외하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생각이 같고 통하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발렌티나는 밀라노에 가서 꿈을 펼쳐 보기로 맘을 먹고 친구 프로테우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프로테우스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발렌티나는 떠났고 둘은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프로테우스는 율리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율리아도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사랑을 너무 쉽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모르는 체 했습니다. 프로테우스는 안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편지를 읽은 율리아는 사랑을 담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프로테우스는 감격하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프로테우스의 아버지가 보고 무슨 편지인가 물었습니다.

당황한 프로테우스는 발렌티나가 밀라노에서 공작의 사랑을 받으며 잘 지내면서 자신을 초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밀라노에 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 못하는 프로테우스는 율리아와 반지를 교환하고 사랑을 맹세하고 밀라노로 갔습니다.

한편 밀라노에서 발렌티나는 정말로 공작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있었고 공작의 딸 실비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작은 딸을 투리오와 결혼시키기로 정했습니다. 실비아는 감각도 없고 재능도 없는 투리오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투리오와 발렌티나가 동시에 실비아를 만났습니다. 발렌티나는 재치로 투리오의 모든 말을 농으로 받으며 실비아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공작이 나타나 발렌티나 친구 프로테우스가 밀라노에 도착했음을 알려주었고 발렌티나는 친구를 칭찬하며 공작에게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밀라노에 찾아온 프로테우스는 발렌티나가 실비아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비아를 보자마자 친구도 사랑하는 율리아도 있고 실비아를 사랑하는 율리아도 있고 실비아를 사랑하는 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작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실비아와 사랑의

도피를 계획하는 친구의 비밀을 공작에게 전해 공작의 인정을 받고 친구인 발렌티나가 추방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율리아는 사랑하는 프로테우스를 찾아 밀라노로 갔습니다. 만날 위험을 고려해 남장을 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율리아가 소문을 들어보니 프로테우스가 실비아에게 구애하고 있음을 알고 분노와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마침 프로테우스가 자기 시종을 해고하자 율리아는 새 시종이 됩니다.

프로테우스는 새 시종(율리아)으로 반지를 실비아에게 전하며 사랑을 전하게 했습니다. 남장한 율리아는 프로테우스가 첫사랑을 배신한 이야기와 반지를 전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첫사랑을 버린 프로테우스에 대한 실망감에 실비아는 프로테우스의 반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추방당한 발렌티나는 밀라노 근처 숲에서 헤매다가 산적들에게 잡혔습니다. 산적들은 발렌티나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추방당해서 무일푼이라 했습니다. 발렌티나 상황을 알고 그의 인품과 기계에 감복한 산적들이 그에게 두목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요청에 응하면서 발렌티나는 산적 두목을 맡으면서 여자와 약자는 유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투리오와 결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실비아는 발렌티나를 찾아 만투아로 출발했습니다. 만투아로 가다가 산적에게 붙잡혔습니다. 벌벌 떨던 실비아는 두목에게로 끌려가던 중 실비아를 쫓아온 프로테우스와 맞닥뜨렸습니다. 프로테우스는 실비아를 만나자 그녀에게 구애하였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남장의 하인 율리아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발렌티나가 도착했습니다. 부하 산적이 어느 여인을 붙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을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기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미래는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BHE, ATS, ACSI, SACS 인증.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온라인 수업 제공. (626) 653-9547 Ext. #112/admin.kor@itsla.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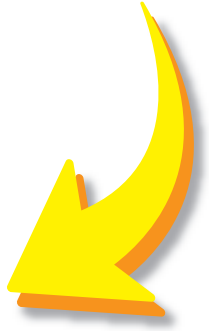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전기세는 내려가고
-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고
- Tax Credit 까지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덤으로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70~8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전기세 ~~30%~50%~~ **70%~80% 절감효과**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 빨리 설치할 수록 많이 절약합니다 ***



BTS 솔라 디자인 213.500.8000

-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강준민 칼럼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찰스 스펀전은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달팽이가 언제 방주를 향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달팽이의 지혜는 자기 속도를 따라 묵묵히 방주를 향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한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계속 정진하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토끼의 상대가 아니듯이 달팽이도 토끼의 상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를 알고 그 속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습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기억하십시오.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매우 빨랐습니다. 거북이는 매우 느렸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를 느

림보라고 놀려댔습니다. 거북이는 자극을 받고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청했습니다. 경주를 시작한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뒤진 것을 보고 안심을 하고 중간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낮잠을 길게 자자 거북이는 토끼를 추월하게 됩니다. 잠에서 문득 깬 토끼는 거북이가 자신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뛰어갔지만 결과는 거북이의 승리였습니다. 이 우화는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교훈에 줍니다. 솔로몬도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전 9:11상)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속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절한 속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를 알고, 그 속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팽이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로 시속 0.03mph의 최대속도를 냅니다. 달팽이는 부드러운 진흙투성이의 몸으로 건조하지 않게 습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북이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느린 거북이는 시속 0.03-0.13mph입니다. 이 거북이가 바다로 가면 속도는 22mph로 빠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좋아했던 것은 거북이와 독수리입니다. 이습 우화에 나오는 거북이를 좋아했던 까닭은 거북이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성실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한 방향을 선택한 후에는 다른 방향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작

은 걸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직함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결국 거북이는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약삭빠른 것이 싫었습니다. 우직한 것이 좋았습니다. 늦지만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늦는 다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정도를 걷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날마다 정진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섰을 때 받은 유혹은 조급함에 있었습니다. 빠르고 쉬운 길을 걷고 싶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거북이를 생각하며 늦어도 정도의 길을 걷기에 힘썼습니다. 거북이의 삶은 단순합니다. 작은 일을 잘해 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위대한 것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입니다. 평범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사소한 일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북이를 좋아하는 것만큼 독수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독수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독수리의 눈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독수리의 눈은 예리합니다.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독수리는 앞을 내다보고,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소유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깊이

볼 줄 아는 눈을 소유했습니다. 저는 비둘기의 부드러운 눈과 함께 독수리의 예리한 눈을 동경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필요할 때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거북이의 속도만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 중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빠르게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제가 거북이와 독수리를 함께 좋아하는 이유는 균형 때문입니다. 거북이처럼 얄드려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거북이처럼 성실하고 우직하게 사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달팽이와 거북이만 끈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도 끈기가 있습니다. 어린 독수리는 하늘을 비상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속도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땀을 반복하는 중에 속도는 빨라집니다.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하고 있는 일을 끈기 있게 계속하십시오. 끈기가 지혜입니다. 끈기가 목표를 성취하는 비결입니다. 루이 파스퇴르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나의 비밀을 한 가지 말하겠다. 나의 힘은 끈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끈기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김한요 칼럼

화이트 카드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다 보면 복싱 경기 하듯 선수들이 갑자기 스틱을 던져 놓고 서로 주먹을 날리며 싸우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아이스하키 팬들은 경기도 경기지만 선수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것도 아이스하키 경기의 재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재미 때문인지 하키 선수들치고 앞니가 남아 있는 선수

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 경기 중 몸싸움이 많은 종목은 축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심이 경기 도중 거친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경고의 의미로 옐로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심하면 레드카드를 꺼내어 선수, 심지어 거친 항의를 하는 코치까지도 퇴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싸움은 늘 과한 승부욕에서 나오는 반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고 카드로 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포르투갈 축구 협회 리그에서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화이트 카드’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자 축구 대회였는데, 벤치 쪽에서 누군가가 몸에 이상이 생겨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양쪽 응급팀이 함께 대응하는 모습에,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보여주었다고, 주

심이 화이트 카드를 양쪽 팀에 들어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심판이 하는 일은 반칙할 때 호루라기를 부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의 심판은 반칙을 가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일 것입니다. 어느 선수가 잘하나를 보고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은 없습니다. 승부를 가리는 세계에서는 늘 반칙이 당연한 듯 자주 일어납니다. 달려가는 선수에게 태클을 걸고, 손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심 눈을 피해 밀치고 당기는 일이 비밀재합니다. 그런 것만 보다가 갑자기 등장한 화이트 카드는 신선하다 못해 신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반칙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요, 또한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도 아닙니다

(갈 6:7).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당연히 반칙을 했으면 공정한 벌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신 하나님도 화이트 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옐로나 레드카드보다 화이트 카드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 큐티하며 말씀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화이트 카드를 들고 뛰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황송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42)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진유철 칼럼

약속과 현실 사이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갭(gap)이 있습니다. 그 때 내가 말씀과 상황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믿음이나 아니냐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8장에 수넬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평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과 숙소로 섬겼는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엘리

사 선지자에게 간청하므로 아들을 다시 살리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배교의 시대였는데,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가 7년 기근을 미리 말씀하면서 잘 살고 있는 여인에게 일어나서 판 곳으로 피난 가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 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인하리라 하니”(왕하8:1)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기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근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택과 반응으로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것인데, 믿음은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gap)을 메우는 힘입니다.

기근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모두에게 알려졌으나, 그 메시지를 따라 행동한 것은 믿음으로 준비 된 수넬 여인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말씀에 즉시 순종하느라 제대로 처분도 하지 않고 급하게 떠나야 했었습니다. 현실에서 말씀 때문에 그냥 버리고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떠났는데 7년 후 돌아 왔을 때는 집과 땅을 다 빼앗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왕하8:6) 결과는 승리와 영광과 풍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배교의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분이 되었습니다. “말씀 없는 안정”보다 “말씀과 함께 하는 광야”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인데, 자신의 서러움과 분노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상황이나 남의 눈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삶의 안정과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힘들고 두려워도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나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한 번 두 번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약속이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동식 칼럼

존경하는 스승 리더가 계신다는 것



박 동 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새해 첫날 혹은 새해 어느 한 날에는 LA에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이 은사이신 서정운 총장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새해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었다. 총장님의 설교는 늘 언제나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신대원 재학시절부터 개강예배, 종강예배 때 늘 언제나 이 본문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말씀이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스승이 계신다는 것은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람으로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제자들이 총장님을 존경할 것이다. 학생들과 자주 축구도 하시면서 권위도 내세우지 않으시고 늘 온화하게 학생들 이름 불러 가며 어울리셨다.

이제까지 강의 들으면서 눈물 흘린 적이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대학교 4학년 때 존경하던 교수님이 학교를 떠나시면서 하셨던 <철학적 인간학> 수업 마지막 니체 강의를

들으면서였고, 또 한 번은 신대원 때 서 총장님의 선교학 수업을 들으면서였다. 조직신학을 공부하고자 했던 학생이 선교학 수업에 눈물을 흘렸더니, 아이러니하지만 그랬었다. 총장님을 보면서 리더란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삶으로 배운다. 몇 해 만에 다시 모여 보니 존경하는 스승이 계신다는 것이 다시금 감사하다.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마시고 싶어한다. 그 물이 그리운 것이다. 그러자 세 용사, 요셉밧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우물물을 길어 온다. 하지만 다윗은 마시지 않고, 그 물을 주님께 부어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한다(삼하 23:14-17).

그 물은 세 용사가 목숨 걸고 구해온 물이기에 다윗은 마시지 않는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목숨 걸고 구해왔는데 마신다? 어쩌면 바른 왕이 아닐 것이다. 그 물을 본 것만으로 좋았을 것이다. 그 물이 정말로 마시고 싶어도 고생한 부하들을 생각하면 마실 수 없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다윗은 그렇다고 그 물을 버리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께 부어 드린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 동역자들을 수단으로만 삼는 리더가 있다면 바른 리더가 아닐 것이다. 동역자들은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기계 부품이 아니다. 그들

의 수고와 땀이 있기에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는가. 그 수고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리더 자신도 언젠가는 기계 부품처럼 교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존경받는 리더는 같이 하는 이를 존중할 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는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지만 찾지 못하였다. 포도원 지기에게 말한다. ‘3년을 와서 열매를 얻으려 했지만 못 얻었다. 찍어버려라. 땅만 버릴 수 있느냐.’ 포도원 지기가 말한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눅 13:6-9) 한다.

포도원 주인의 태도는 철저히 실용주의적이다. 손익계산을 따져서 일을 처리한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그런 손익계산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대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리더는 포도원 주인의 사고가 아닌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공동체 식구들을 돌봐야 할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에 대해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리더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돌보고 기다려 주는 자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잃은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며 잔치를 벌인다. 잃은 양 비유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 다음을 말씀하신다.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눅 15:7). 더 큰 숫자인 99마리의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이 참된 리더의 마음이어야 할 것이다.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 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하는 것이지 싶다.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역지로 참여할까.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겠는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마음을 잡는 것이야말로 그의 전부를 얻는 것 아니겠는가.

진정한 리더가 부재한 시대에 존경하는 스승이 계신 것만도 큰 배움이 아닐 수 없다.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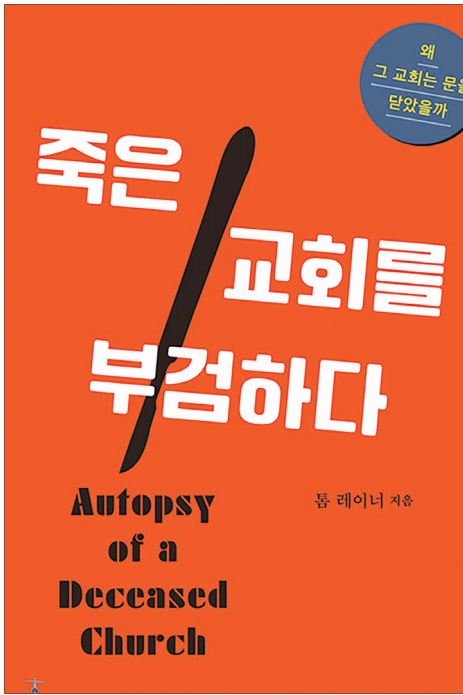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아프지만 읽어야 할 책

죽어가는 그 교회, 살아날 가능성 있을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톰 레이너 | 정성묵 역
두란노 | 156쪽

“이 책에
소망과 해법이 있다”

언제, 어떻게 목적을 잃었는지
알기 힘들만큼,
느리게 서서히 죽어간 교회들,
아무도 그 교회들이
죽게 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필자는 목회의 길을 들어서기 전 직장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었다. 직장생활 기간 대부분을 첫 직장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나의 반쪽을 만나 결혼했다.

당시 30대 재벌에 속하기도 했고 모회사였던 내 직장은 꽤 중량감 있는 건설회사였다. 그런 직장이 IMF 시기에 거의 무너지고 말았다. IMF 때 치명상을 입긴 했지만 IMF와는 별개로 이미 위기는 닥쳐왔고, IMF로 인해 그 타격을 더 크게 받았을 뿐이었다. IMF가 아니어도 회사는 언제든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말하는 이들은 있었어도, 그것을 고치려는 이들은 없었다. 당시 건설회사라는 상당히 보수적인 특성에 오랜 역사로 인해 회사는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했다.

그래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영층도 알았기에, IMF 전 해 대대적인 컨설팅도 있었고 그것을 위한 논문 공모도 있었

다. 개인적으로 필자가 쓴 소논문이 당선되어 해외여행 티켓을 부상으로 받았을뿐더러 TF팀에 들어가 잠시 일도 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컨설팅을 통해 나온 진단과 솔루션이 있었지만 그것이 1년 동안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았고, 사실 그 컨설팅 솔루션은 몇 년 전 회사 한 임원이 제시했던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 솔루션을 몇 년 전 앞서 제시했던 임원은 그것을 내놓고 얼마 못가 면직됐다(필자의 논문도 요약본만 회사사회에 실렸을 뿐이다. 논문 전체를 읽은 사람은 극소수다).

이번 톰 레이너의 책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를 읽으며 오래전 다녔던 기업이 떠오른 것은 교회나 기업이나 이상신호를 느끼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제목부터 상당히 강하기에(원서도 그렇다) 조금은 읽기 꺼려졌다. 교회 이슈에 대해 일종의 선정적 접근과 글쓰기 아닐까 우려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교회의 아픈 현실과 상황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 책을 써내려갔다. 이 책을 읽어본다면 제목이 과장이나 지나친 부각이 아니라, 제목처럼 죽은 교회를 직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사망 직전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 일말의 도움이라도 주기 위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저자의 책을 읽다 보면,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보게 된다.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잊고 그저 자신들의 리그를 유지하려는 이들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사망 원인들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직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무엇보다 병은 급성보다는 만성이 고치기 힘들다. 오랫동안 이미 병들어 와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갑자기 사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저자의 표현처럼 그것을 깨닫고 위기를 느끼는 것은 결코 그 교회 교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설혹 그것을 느낀다 해도 실제로 소생의 길을 택하는 교회도 많지 않다. 마치 심한 중병이 걸린 이가 의사가 권하는 치료방법과 처방전을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과 일반이다. 어리석지만 그런 일은 부지기수인 듯 싶다.

저자는 사망 요인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책 말미에 사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것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쉬운 일도 아님을 강조한다. 마치 만성질환에 걸린 이가 온전한 몸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한 번의 약 투여로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책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고, 필자의 목회뿐 아니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거처온 여러 교회들을 떠올리며 많은 상념이 들었다. 이 책은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뿐



톰 레이너 박사. ©남침례교.

아니라 자신의 교회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읽을 필요가 있다. 문제없다는 것은 자신들만의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지만 강렬한 이 책을 읽고 자기성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사망의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절대 이 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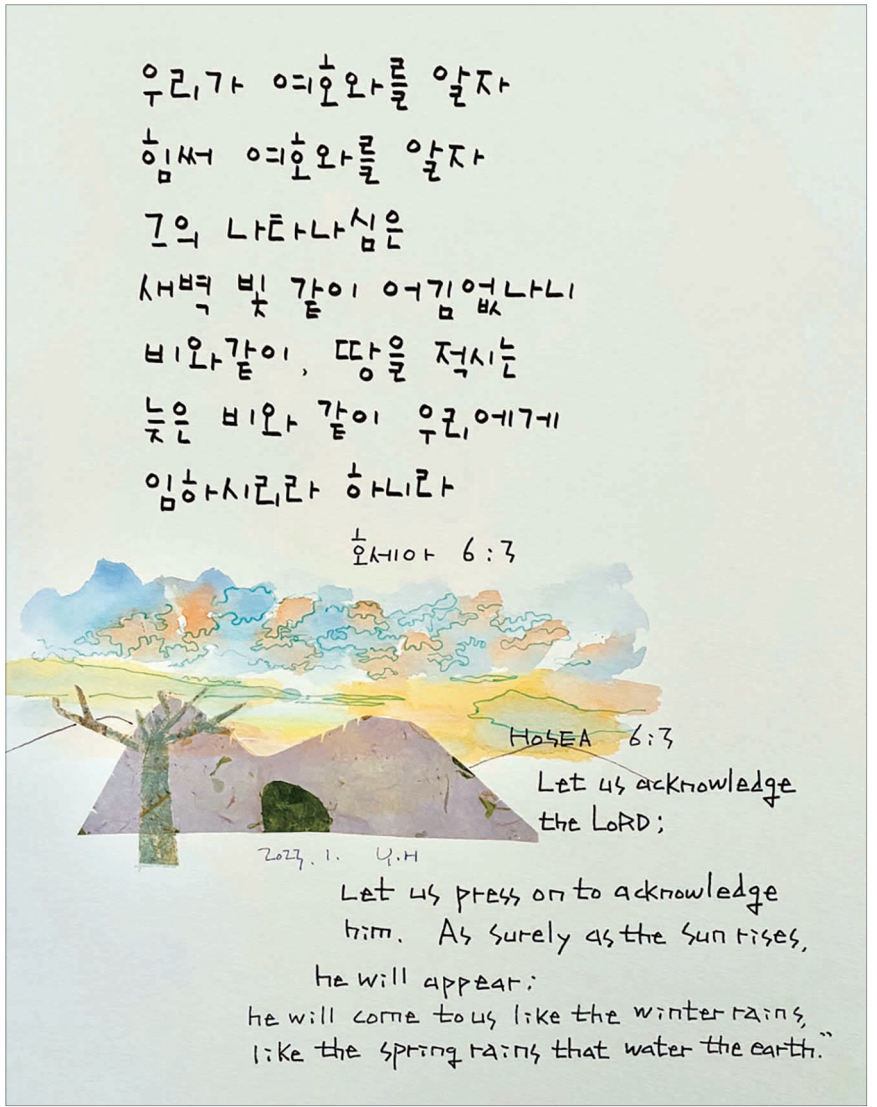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회사의 빌딩은 아직도 시내 중심에 우뚝 서서 존재한다. 그 회사가 지

은 아파트와 토건의 결과물은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한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죽었다. 저자의 말처럼 교회는 죽어도 건물은 남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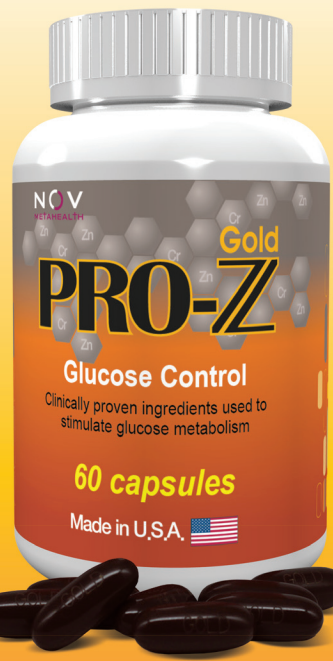
P.S. 이 책의 말미에는 죽은 교회를 아름답게 정리하는 비결도 나온다. 아프지만 믿는 이로서 지역 교회의 죽음이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추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글루코산 아연 +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증추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코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아연인 산화아연(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결합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2)

<미스터 션샤인> 김은숙 작가, <더 글로리>로 기독교에 대한 입장 바꿨나

넷플릭스의 반기독교 철학, 문제 <오징어 게임>과 <수리남> 대표 한국교회 값싼 복음 경도도 문제 상실한 참된 회개와 두려움 회복

◆기독교인과 범죄: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소재가 되어가는 기독교인 비행과 범죄

<더 글로리>에 등장하는 가해자 집단의 한 사람인 이사라(김히어라 분)는 중대형 교회 목회자 자녀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목회 규모에 힘입어 획득한 재력과 명성을 악용해 학창 시절에는 가학적인 학교폭력을 일삼고, 성인이 되어서는 마약과 난잡한 남자관계에 빠져 살아간다. 또 화가로서의 재능을 활용해 자신의 작품으로 재력가들의 자금세탁과 탈세를 돕고 그로부터 큰 재정적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신자로서, 목회자 자녀로서, 충실한 성가대 대원으로서의 외양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범죄자 기독교인'의 표상은 한국 미디어 업계에서 이전부터 정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영화와 드라마 속 기독교인 범죄 묘사는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 이전에는 거짓된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인 가족 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묘사가 주로 기독교의 현실을 중심 주제로 다루는 작품들에 몰려 있었다.

대표적인 작품이 신승수 감독의 <할렐루야>(1997),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밀양>(2007)이다. 두 작품은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만, 교회 내부의 위선과 부조리를 중심에 두고 서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면에서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기존의 기독교인 범죄 관련 묘사는 교역자와 교인들의 삶을 중심에 둔 작품들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이 불과 몇 년 만에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모든 종류의 범죄, 스릴러 장르에서 기독교인 범죄라는 소재가 등장한다. 그렇다고 기독교나 기독교 관련 이단 종파의 위선과 범죄행각을 중심 소재로 삼는 작품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다. 즉 이제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많은 영화, 드라마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기독교인의 위선, 비행, 범죄를 다룬다.

그 선봉에는 넷플릭스가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오징어 게임>(2021)과 <수리남>(2022)이다. <오징어 게임>의 서사는 전반적으로 기독교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면에서 기독교인들의 꼴불견과 위선을 폭로하고 있다.

<수리남>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의 악당 전요한(황정민 분)의 모델이 된 실존인물 조봉행은 원래 사이비 기독교 집단과 아무 상관 없는, 일반 마약 밀매업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남>은 사이비 기독교 집단의 범죄행각을 서사의 중심 소재 중 하나로 택해서 현실적 근거가 없는 기독교 비하에 열심을 낸다.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정서를 공유하다 보니, <더 글로리> 김은숙 작가 역시 이런 흐름에 한 발 담그는 모습이다. 원래 김은숙 작가의 전작들은 종교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물론 2016-2017년 흥행 대작이었던 <도깨비>에서는 한국 전통 신화를 중심 소재로 놓았던 까닭에 불교, 도교, 무속을 적극 미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독교 및 교회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비방이나 비하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 흥행작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개화기 기독교 선교사와 교회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한 까닭에 김은숙 작가가 이번 <더 글로리>에서 보인, 기독교 및 교회에 대한 입장의 태세 전환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김은숙 작가는 한국 영상콘텐츠 시장의 대세와 흐름을 볼 줄 아는 인물이다. 그런 역량 있는 작가가 자신의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인 범죄를 적극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현재의 영상콘텐츠 업계에서 기독교인의 도덕적 약점을 몰고 늘어지는 일이 대중의 호응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교회와 범죄: 값싼 복음에 경도된 한국교회의 도덕적 퇴락

한국의 영화, 드라마 업계에서 이처럼 기독교인의 위선과 범죄를 묘사하고 비하, 희화화하는 일이 일상화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가치를 구시대적 역할들의 근원지로 여기는 넷플릭스의 영상제작 철학이다.

넷플릭스는 애초 기발함과 창의성을 무기로 삼는, 마이너하면서도 작품성 있는 영화를 추천해 보내주는 서비스로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 영상콘텐츠 시장에서 기발함이란 서구의 전통적 가치를 이리저리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을 뜻했고, 이는 곧 서구 전통문화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현재는 이 넷플릭스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제작시장의 주요 투자자로 자리잡은 상황이기에 넷플릭스를 통해 제작되는 거의 모든 작품에는 그 비중이 크든 작든 간에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 메시지나 누앙스가 포함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개된 넷플릭스 작품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의 논리와 적실성 자체를 비판하는 장면들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원한과 사적제재를 서사의 중심에 둔 드라마, <더 글로리>.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 기독교인 범죄가 단골소재가 된 두 번째 요인은 당연하게도 실제 한국 기독교인들에 의해 벌어진 비행과 범죄 사례들이다.

한국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작품들은 미국 현지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작품들과는 달리, 기독교인들의 위선과 범죄 행각을 비판하는데 많은 공을 들인다.

여기에는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교세의 빠른 성장을 위해 '값싼 구원'을 영가판매하듯 남발해온 한국교회의 비복음적 행태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국교회는 미국 기독교계의 원조를 받아 국내의 가난하고 피해해진 대중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목회자들이 전쟁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인락한 삶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을 복음을 명분삼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신변의 안전과 풍요로움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무조건 대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세의 복락은 그 정도가 일정 수치를 넘는 경우 반드시 신앙의 퇴락으로 이어진다.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 잃은 설움과 고통을 회개와 기도를 통해 극복하려 했던 기독교계 전반의 정서는 한국전쟁 이후 현세의 복락을 향한 열망 추구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당시 이 흐름에 적극 동참한 교회들이 중대형 교회로 성장했고 현재 한국 교계의 중심점을 이루고 있다.

<더 글로리>의 사라라는 캐릭터에 대한 묘사는 바로 이런 한국교회의 현대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만사가 형통해지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 소위 기복신앙과 변영신학의 폐단이 사라라는 캐릭터를 통해 잘 드러난다.

학창시절 자신이 수없이 폭력을 가했던 피해자 문동은(송혜교 분)을 앞에 두고 "난 천국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대사는, 무조건적 속죄와 현세에서의 만사형통을

부르짖던 한국교회의 왜곡된 복음이해가 만들어낸 기괴하고 기형적인 생각이다.

이 대사는 <밀양>의 아동납치 및 살해범인 박도섭(조영진 분)의 대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자신이 유괴살해한 아이의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감격스레 말하는 장면은 한국교회에 널리 배포된 기형적인 값싼 은혜의 표본과도 같은 모습이다.

참된 회개와 두려움을 상실한 기독교인들의 왜곡된 심성 묘사에 대해 한국 기독교인들 모두 자신있게 반박할 수 있을까. <더 글로리>의 사라는 목회자 자녀이자 표면적 기독교인이다.

그런 그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등장하는 것, 저항이 힘든 약자를 고문하는 범죄자로 등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가능성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2020년 발생한 정인이 사건 가해자는 기독교인 부부였고 두 사람 모두 목회자 자녀였으며, 주변에 신실한 교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런 현실 사례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교회의 처절한 회개와 자정 노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한국 영상콘텐츠 업계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동네북 취급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문화적 영향력 자체에 대한 넷플릭스의 조직적 반감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겠지만,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인 비판과 비하의 밀미를 제공하는 기독교인의 비행과 범죄에 대해서는 교회와 교인들 편에서 스스로 엄중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교역자와 교인들의 여러 비행과 범죄들을 "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폐하고 무마시키는 태도가 지속되는 한, 복음과 용서에 대한 비틀린 의식은 교회 내부에 계속 독초로 뿌리내릴 것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유한양행 전용 농장의 통녹용, 한국 비무장 지대 유한양행 전용 농장의 통 인삼.

유한건강생활 NewOrigin

70ml x 30 포

전녹용 마일드

녹용의 분골부터 하대까지 전체를 담은 뉴질랜드산 전(全)녹용과 23가지 전통원료를 함께 담아낸 건강 한 포.

전녹용 마일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활력을 충전하고 싶으신 분
- ✓ 원활한 영양 공급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
- ✓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체력 저하를 느끼는 직장인
- ✓ 여행, 출장, 운동 시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
- ✓ 고급스러운 선물용 제품이 필요하신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cellreon.com 인터넷 검색창에 "셀리온"을 입력하세요!

셀리온 🔍

건강하고 아름답게 셀리온

판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738-1188
매	부메나팍	소스물 1층	714-523-8100
처	엘바인	시온마켓 정문 원편	949-800-8788



GRAND OPEN

올코샵 그랜드 오픈

KIDOK SHOP과 함께 합니다.

www.kidokshop.com

BEST SELLER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대한민국 1등 비타민, 75년 신뢰의 건강파트너입니다.

고려은단
미국 공식판매점
본 판매처의 제품은 올코샵이 보증하는
100% 정품입니다.

한국인 영양에 딱!!
식습관이 다르면
비타민도 달라져야죠



9년 연속
대한민국
1등 비타민

기초건강
항산화
에너지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모두 한 알에 담았습니다.



멀티비타민
비타민C와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비스타 종아리 압박밴드

이제 주무르지 마세요

20-30mmHg의 단계적 압박

1+1

- 혈액순환 개선
- 혈류 촉진
- 붓기 완화
- 통증 완화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BEST SELLER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100% 국내생산

1

\$45 \$38

두껍고 둔탁하게 일지 말고 무봉제 기술을 알고 가보세요!

“바른 자세” 이렇게 쉬웠어?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슬림 바른자세 고정밴드 허리 등 목 고정기

착용 전

착용 후

하나사면 하나공짜

1+1

400 \$199

슈에뜨와 함께 새해를 출발하세요

녹는 콜라겐 마스크팩

슈에뜨에서 공개하는 첫번째 스페셜 아이템

CHOUETTE 3초만에 흡수되는 녹는 마스크 패치로 콜라겐과 비타민 충전!

부분별 패치

- 콜라겐 비타민 패치 이마 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Forehead)
- 콜라겐 비타민 패치 눈 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Eye)
- 콜라겐 비타민 패치 볼 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Cheek)

초미세 흡수력

3초만에 흡수되는 5만 나노 하이퍼 패치

식물성 비타민 C

1,000ppm 함유

수용성 콜라겐 99.9%

인체 콜라겐과 유사한 수용성 콜라겐

간편하게 피부관리 하세요!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상담!

기독교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스캔하고 상담하기!

www.kidokshop.com

도소매 문의 환영

전화 상담

213-235-6663

KIDOK SHOP

Undergent

RIVISTA

SNOOZY SOCKS

Sulwhasoo

공식판매처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공식판매처 **CHARMZONE NC1**

교회단체 행사선물

도소매 판매점 문의

erom

매장주소

3055W.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